

헤어 길이와 헤어 컬러가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김재숙 · 류지원*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청양대학 뷰티코디네이션과

Interaction Effects of Two Salient Cues on Males Fashion Images: Hair Lengths & Hair Colors

Jae-sook Kim · Ji-won Ryu*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Beauty Coordination, Chongyang Provincial College

(2004. 5. 18. 접수)

Abstract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find out the joint effects of two salient appearance cues-hair colors and hair lengths on males fashion images, using 729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city and a Chungnam province. The study was a quasi experiment;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hair lengths(4 levels) and hair colors(4 levels)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a set of semantic different of scales which was consisted of 40 bi-polar adjectives, The data were analyzed by a factor analysis, 3-way ANOVA,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Hair lengths effected on the image of five dimensions, salient, social, potency, evaluate and dynamics while hair colors effected on salients, social and potency dimensions. The most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hair color and lengths were existed on the salient image: For the longer haired males, the color effects became less evident then normal to shorten haired males and it can be concluded that when two salient cues were combined one cue's effect became discounted.

Key words: Hair color, Hair length, Fashion image, Salient, Interaction effect; 헤어컬러, 헤어길이, 패션 이미지, 현시성, 상호작용효과

I. 서 론

개인의 외모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타인을 평가하는 단서로서 작용한다. 얼굴, 체형, 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통해 표현되는 외모는 사회적 상호작용시 지각자에게는 착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착용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비언어적 단서로서 상징적 역할을 한다(Horn & Gurel, 1981). 이러한 외모의 역할은 TV, 미디어와 여러 가지 영상매체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표현되는 외모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최근의 외모 장식에 대한 반응과 평가는 이전의 여성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남성들도 외모에 관심이 증가하여 자신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단순히 의복변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헤어스타일, 화장까지도 받아들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외모관리에 있어서 남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직접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화장보다는 길이, 색과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변화가 가능하고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헤

어스타일의 변형을 선택하고 있다.

이미지 형성은 주로 두드러진 단서가 있을 때 그 단서에 의해 착용자의 전체 인상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들에게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그 자체가 두드러진 단서로서 지각자에게 자신의 전체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착용자의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외모변인 중 의복을 변인으로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토틸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과 함께 헤어스타일을 변인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헤어스타일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헤어길이와 착용자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도주연, 2000; 윤소영, 2001; 임희정, 2001), 헤어컬러와 착용자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윤지성, 2000)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에서 착용자의 이미지는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이들은 실제로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킬 때 길이, 컬러, 형태 등을 동시에 바꾸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헤어스타일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헤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두 가지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또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킬 때 한 가지 이상의 요인에 변화를 줄 때 이미지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남성의 이미지는 헤어를 길이만 변화시키는 것보다 길이와 컬러를 동시에 바꾸어 준다면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킨 이 요인들이 두드러진 단서가 되어 지각자가 착용자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자신의 이미지 연출에서 매우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되어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른 남성의 패션 이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헤어스타일에 따른 남성의 패션 이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의 두드러진 단서의 이미지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성들의 외모에서 두드러진 단서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이미지에 대한 이해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헤어변인의 효과를 밝힘으로서 남성들의 패션 이미지 코디네이션을 위한 원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헤어스타일과 이미지

헤어스타일은 인체의 전체 크기에서 보면 작은 비율이지만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시선을 집중시켜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인상 형성시 헤어스타일은 의복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나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영향력은 거의 비슷함으로써 헤어스타일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나광주, 1989).

사람들은 외모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자주 행하는데 전통적으로 길이에 변화를 주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염색약의 개발과 더불어 독창성이 중요시되면서 다양한 컬러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도주연(1990)의 연구에 의하면 짧은 머리는 개성적 이미지에, 중간 길이의 머리와 긴 머리는 세련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머리는 현대적, 도시적, 적극적인 얼굴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긴머리는 여성적 자연스러운 얼굴 이미지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윤소영(2001)의 연구에 의하면 긴 머리는 호의적이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주고, 단발머리는 세련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임희정(2001)의 헤어스타일 형태와 관심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타인에게 단정하고 현대적으로 보이길 원했으며, 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남성의 헤어스타일 연구에서 임남영, 강승희(2003)는 스포츠형이 일반형보다 품위, 활동성, 개성, 사교성 등의 인상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나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Peterson과 Curran(1976)은 남성머리형의 변화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에서 짧은 머리의 남성이 일반적으로 선호되어,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ncer와 Meindl(1978)은 긴 머리의 남자는 짧은 머리의 남자에 비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2. 대인지각 이론

지각은 신체적 에너지가 경험으로 적극적인 변이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자의 활동적인 관여를 요구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지각과정은 형, 색, 크기와 같은 표면에서 두드러진 물체의 속성을 가진 대상이 눈을 통하여 뇌로 전달됨으로써 일으키는 즉각적인 반응이다.

인상형성이란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말하며, 인상형성 과정에서 신체적 외모(체격, 체형, 얼굴, 건강상태, 의복, 화장, 안경, 헤어, 체취 등)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단서로서 사용된다. 외모를 통한 의사소통은 착용자의 의도와 관찰자의 의도가 서로 연결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외모와 의복을 통한 의미는 맥락에 의해 이해되고 발견된다(Kaiser 1990). 특히, 실제 생활에서 외모는 사회적 맥락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외모에 대한 해석은 맥락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포함한 외모는 맥락적 관점에서 인지되어야 한다.

실제 대인지각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돌출 단서가 서로 통합되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장애자와 두드러진 신체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Miller(1982)는 두드러진 신체 단서와 의복 단서가 부정적 인상과 내적 귀인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였고 Wingate(1986) 등도 신체장애자를 위한 의복 디자인에서 장애자 자신은 안락감 요인보다 평범한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상인의 경우에 두 개 이상의 돌출 단서의 통합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의 젊은이를 위한 패션에서 눈에 띄는 돌출단서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단서들의 상호작용 유무를 연구하는 것은 대인지각과정의 심도 깊은 이해와 패션 코디네이션의 원리를 위해 매우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색채심리

색채심리는 대상물에 비추어진 빛이 생리적인 현상을 거쳐 지각되고, 일련의 지각과정에서 색채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주관적 감정 등이 심리적인 연상, 상징과 관련되어 인간의 의식 활동을 수반하는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색채에 대한 감정적 반응효과와 관련된다.

색채는 물체에 대한 지각과정과 정서에 영향을 주

고 색채의 지각적 효과는 물체의 온도, 무게, 크기, 부피, 원근 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심미적 효과는 선호, 정서, 및 색채조화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Fehrman(1987)은 색채에 의해 지각되는 물체의 온도감은 색상에 의한 것으로 적색 계통은 따뜻하게 청색 계통은 차게 느끼고, 중량감은 명도가 높으면 가볍게 명도가 낮으면 무겁게 느끼며, 크기 지각에도 명도의 영향을 받아 같은 크기의 물체는 밝은 색으로 채색된 쪽이 더 크게 보인다. 한편, 원근감은 명도가 높으면 가깝게 보이고 명도가 낮으면 멀게 보이지만 넓이가 넓어지면 이런 경향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색상, 밝기, 넓이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색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특성화된 감정적 힘을 가지며, 그러한 정서적 반응은 각 색채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 또는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 등과 관련되어 있다. 지각자는 외모의 두드러진 색에 의해 지각대상을 평가할 것으로 의복색, 헤어컬러에 따른 인상지각에서도 색에 대한 감정이 표현됨을 볼 수 있다. 윤지성(2000)은 헤어컬러에서 검정색은 부정적 이미지를, 갈색이나 붉은색은 진보적이고 매력적이며 화려한 이미지로서 검정색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핑크계는 헤어컬러는 외, 내향성의 사람이 선호하며 레드계는 강인성이 오랜지, 퍼플계, 그린계 등은 강인성이, 화이트계는 허위성이, 블랙계는 정서성의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컬러로 나타났다(서윤경, 2003).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가설 및 모형

1)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헤어길리와 헤어컬러가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헤어길리와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헤어길리는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헤어컬러는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헤어길리와 헤어컬러의 상호작용 효과는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준 실험방법에서 1인당 1개의 자극물에 응답하는 피험자간 설계 방법으로, 독립변인은 헤어 길이와 헤어컬러를 각 4수준으로 조작하여 4×4요인 설계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인은 패션이미지로 구성되었다. 헤어길이는 level 1: 짧은 머리(전체 2cm 정도; L1), level 2: 약간 짧은 머리(전체 5cm 정도; L2), level 3: 약간 긴 머리(귀밑 5cm 정도; L3), level 4: 긴 머리(귀밑 20cm 정도; L4)의 4수준으로 조작하였고 level 4가 남성의 헤어길이로는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로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할 것이다. 헤어컬러는 현재 많이 염색하고 있는 색 4가지를 선정하여 검은 갈색(5YR2/2; D), 갈색(2.5YR3/4; B), 붉은색(7.5R4/12; R), 노랑색(2.5Y8.5/10; Y)의 4수준으로 조작하였고, 남성의 헤어컬러로 붉은색과 노랑색은 두드러진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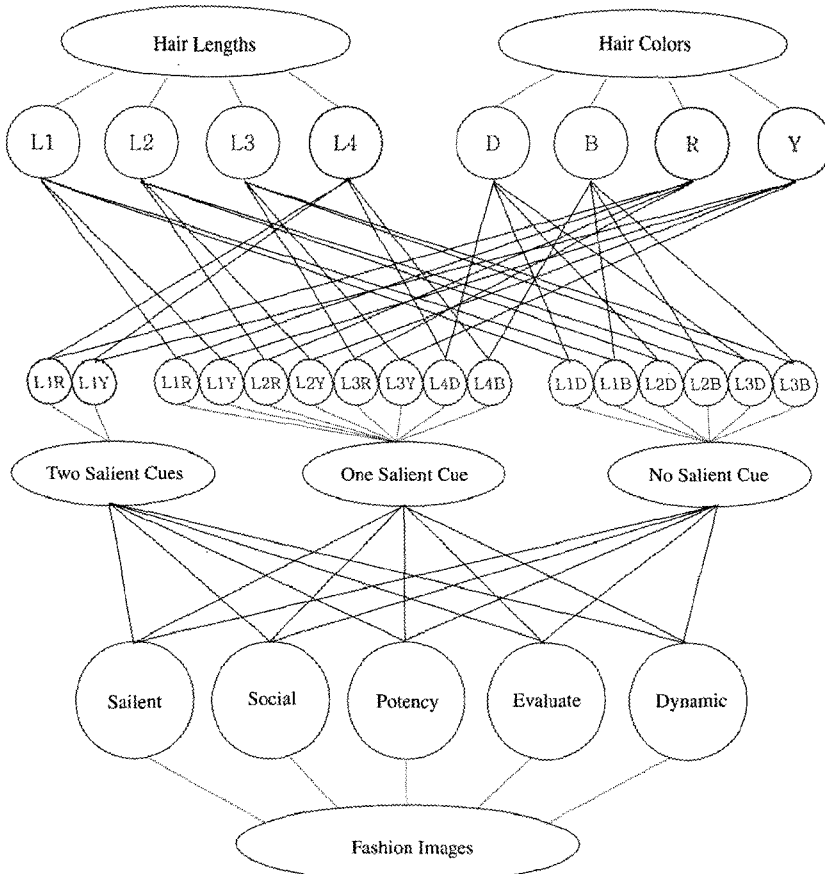
서일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본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는 자극물과 의미미분척도로 구성되었다

1) 자극물

자극물 모델은 상반신 정면의 20대 초반의 12명의 남성사진을 의류학 전공 교수, 대학원생 8명으로 구성된 준거집단에게 제시하여 가장 일반적인 인상으로 평가된 1명을 선정하였다. 자극물은 선정된 모델의 상반신 정면을 사진 촬영한 다음(회색 라운드 티셔츠착용) 헤어길이를 헤어컬러를 CAD, Photoshop 작업으로 <그림 1>에서 제시된 각 수준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2)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 척도는 완성된 자극물을 45명의 피험자에게 제시한 다음 자유 기술케 하여 형용사를 수집하였고 선행논문(윤지성, 2000; 이영미, 서미아, 1998)에서 발췌된 형용사와 합하여 8명의 준거집단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논의를 거쳐 41개의 형용사 쌍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평가방법은 7단계의 척도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16개의 자극물을 한 피험자에게 한 장씩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인상을, 낮은 점수는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대, 청양대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과 미용학원의 수강생 남녀학생 총 800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구성은 대학생 620명/77.5%(남 290명, 여 330명), 미용학원생 180명/22.5%(남 82명, 여 98명)이었고 지역별로 대전 415명/51.9%, 충남 385명/48.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03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총 729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남성의 패션이미지의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Varimax 회전법)을 실시하였고, 헤어길리와 헤어컬러의 영향력이 패션 이미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과 던컨의 사후검정을 SPSS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남성의 패션이미지 요인

남성의 패션 이미지요인은 이미지를 평가하도록 구성된 의미미분척도 41문항을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요인 5개가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 특징을 살펴보면 요인 1은 '눈에 띄는', '화려한' 등으로 구성되어 현시적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고 외향적인 것을 의미한다. 요인 2는 '세련된', '보기 좋은' 등의 사교적 요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기 좋고 호감가는 것을 의미하며, 요인 3은 '유식한', '교양있는' 등의 역능적 요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유능하고 교양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요인 4는 '따뜻한', '다정한' 등의 평가적 요인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더 다정하고 따뜻한 것으로, 요인 5는 '독립적인', '강한' 등으로 구성되어 역동적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독립적이고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현시적 요인과 사교적 요인이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헤어스타일에 따라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회생활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헤어길리와 헤어컬러가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헤어길리와 헤어컬러 및 각각의 성별이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헤어 길리는 5가지 패션이미지 요인에 모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사교적, 현시적 이미지에 큰 영향

<표 1> 남성의 패션이미지 요인

(N=729)

패션 이미지	형용사	신뢰도 계수	고유치 (eigne value)	설명변량 비율(%)	누적 설명 변량비율 (%)
요인1: 현시적	눈에띄는, 화려한, 사치스러운 외 8문항	.92	6.86	17.2	17.2
요인2: 사교적	세련된, 보기좋은, 인기있는 외 9문항	.91	6.83	17.0	34.2
요인3: 역능적	유식한, 교양있는, 유능한 외 5문항	.87	4.67	11.7	45.9
요인4: 평가적	따뜻한, 다정한, 이타적인 외 2문항	.66	2.37	5.9	51.8
요인5: 역동적	독립적인, 강한 외 2문항	.50	2.33	5.8	57.6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컬러는 현시적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사교적, 역능적 패션이미지에 영향을 주었다. 지각자의 성별은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패션이미지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헤어길이와 헤어컬러는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패션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으나, 헤어길이와 지각자의 성별, 헤어컬러와 지각자의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헤어길이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헤어길이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표 2>과 같다. 현시적 이미지는 헤어길이에 따라 차이를 보여 긴 머리>약간 긴 머리>짧은 머리>약간 짧은 머리의 순으로 현시성이 지각되어 긴 머리가 가장 눈에 띄고 화려하게 지각되었다. 사교적 이미지는 짧거나 약간 짧은 머리가 세련되고 보기 좋은 것으로 지각되었고, 역능적 이미지에서는 약간 짧은 길이가, 평가적 이미지에서는 약간 긴 길이가, 역동적 이미지에서는 짧은 길이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즉, 긴 머리는 가장 현시적이며, 사교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고, 짧은 머리는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평범한 스타일이지만 역능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사교적, 역동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약간 짧은 머리는 능력있는 인상을 주었으며 비교적 사교적이었으나 평가, 역동적 인상은 부정적이었으며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약간 긴 머리는 평가적 인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 눈에 띄는 이미지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패션 이미지 요인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것은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선

행연구(윤소영, 2001)의 결과와는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여성의 경우 짧은 머리와 약간 짧은 머리가 현시적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패션이미지에서는 긴 머리와 약간 긴 머리가 현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긴 머리가 가장 사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는 가장 짧은 머리가 가장 사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약간 긴 머리가 가장 평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는 약간 긴 머리가 가장 평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긴 머리가 가장 역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약간 짧은 머리가 가장 역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다르게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여성의 경우 짧은 머리가 가장 역동적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패션이미지에서도 짧은 머리가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헤어컬러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헤어 컬러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남성의 패션 이미지 요인 중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요인에서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보였다. 현시적 요인에서는 붉은

<표 3> 헤어컬러에 따른 패션이미지 차이 (N=729)

헤어컬러 \ 패션이미지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검은갈색	-.77B	-.29B	.16A
갈색	-.27B	-.01B	.08A
붉은색	.45A	.14A	-.02B
노랑색	.56A	.16A	-.21B
F값	128.8***	10.4*	6.5**

***p<.001, **p<.01, *p<.05
(Duncan의 사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

<표 2> 헤어 길이에 따른 패션이미지 차이

(N=729)

헤어길이 \ 패션이미지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평가적	역동적
Level 1	-.11C	.62A	-.35C	-.25C	.50A
Level 2	-.47D	.30B	.41A	-.05C	-.19C
Level 3	.16B	-.51C	-.22C	.27A	-.34C
Level 4	.48A	-.42C	.12B	.03B	.06B
F값	65.7***	67.0***	25.5**	6.7*	27.7**

***p<.001, **p<.01, *p<.05 (Duncan의 사후검정에 의한 집단구분)
Level 1: 짧은 길이, Level 2: 약간 짧은 길이, Level 3: 약간 긴 길이, Level 4: 긴 길이

색과 노랑색 헤어가 갈색과 검은갈색 헤어에 비해 눈에 띄고 화려하여 현시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사교적 요인에서도 붉은 색과 노랑색 헤어가 갈색과 검은 갈색 헤어에 비해 세련되고 보기 좋으며 인기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역능적 요인에서는 갈색과 검은 갈색 헤어가 붉은색과 노랑색 헤어보다 유식하고 교양 있는 것으로 지각되어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즉, 헤어컬러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머리 색에 가까운 갈색과 검은 갈색이 눈에 띄지 않으나 능력 있는 것으로 지각된 반면 붉은 색과 노랑색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세련되고 보기 좋게 지각되어 사교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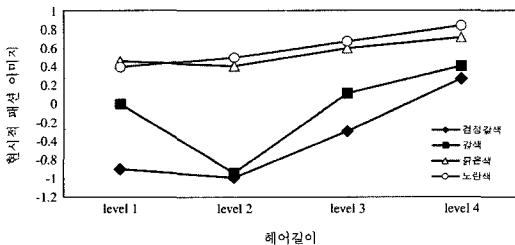
3) 헤어길기와 헤어컬러가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 작용 효과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상호 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시적($F=10.4, p<.05$), 사교적($F=4.4, p<.05$), 역능적($F=2.0, p<.05$) 요인에서 상호 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현시적 요인에서의 상호 작용 효과

현시적 요인에서의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와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림 2>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헤어컬러가 노랑색이나 붉은색인 경우 모든 헤어 길이에서 현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헤어컬러가 갈색과 검은 갈색인 경우 헤어길이에 따른 헤어 길이에 따른 현시성에서 차이를 보여 긴 머리일 때 다른 헤어길이에 비해 현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헤어컬러에서 노랑색과 붉은색, 헤어길이에서 긴 머리가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여 시각적으로 눈에 띄고 화려한 이미지로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개의 두드러진 단서가 조합된 긴 머리일면서 노랑 색이나 빨강색인 경우 현시적 이미지의 돌출효과가



<그림 2> 현시적 요인에서의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의 상호 작용효과

하나의 두드러진 단서의 경우(예, 약간 긴 머리에 노랑색, 빨강색인 경우와 긴 머리에 검은 갈색, 갈색인 경우)와 비교하여 아주 적게 나타났다. 즉,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의 두 가지 단서가 모두 두드러질 경우 하나의 단서가 두드러지는 경우의 효과를 합한 것보다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헤어컬러가 검은 갈색이면서 귀밑 5cm까지의 길이는 눈에 띄지 않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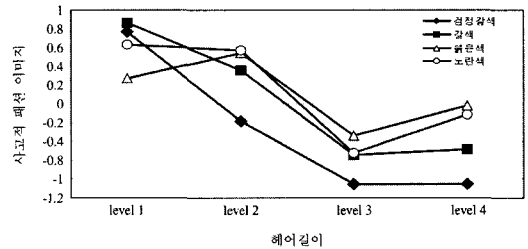
(2) 사교적 요인에서의 상호 작용 효과

사교적 요인에서의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와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사교적 요인에서는 헤어컬러가 검은 갈색과 갈색인 경우 짧은 머리가 사교적이었으나 약간 긴 머리나 긴 머리에서는 사교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컬러가 노랑색과 붉은 색인 경우 약간 짧은 머리, 약간 긴 머리, 긴 머리에서 검은 갈색과 갈색헤어보다 사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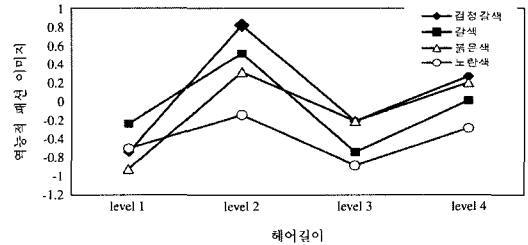
즉, 짧은 머리를 제외하고 동일한 헤어길이에서는 밝은 색의 헤어가 어두운 색의 헤어보다 세련되고 보기 좋다고 지각되어 눈에 띄는 헤어스타일이 남성들에게 사교적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역능적 요인에서의 상호 작용 효과

역능적 요인에서의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와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그림 4>와 같은 경향을



<그림 3> 사교적 요인에서의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의 상호 작용효과



<그림 4> 역능적 요인에서의 헤어길기와 헤어컬러의 상호 작용효과

보였다. 약간 짧은 머리의 검은 갈색과 갈색 헤어가 다른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의 조합에 비해 역능적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었다. 즉, 약간 짧은 머리의 검은 갈색과 갈색헤어는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단서가 없는 남성들의 기본 헤어스타일로 유식하고 교양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짧은 머리에서는 갈색이 다른 헤어컬러보다 역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약간 짧은 머리에서는 검은 갈색과 갈색이, 약간 긴 머리에서는 검은 갈색과 붉은색이, 긴 머리에서는 검은 갈색과 붉은색이 더 역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지각자 성별에 따른 남성 패션이미지의 차이

지각자 성별에 따른 남성 패션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현시적, 사교적, 역동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시적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현시적으로 평가하였고, 사교적 요인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사교적으로 평가하였고, 역동적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역동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4> 지각자 성별에 따른 패션 이미지의 차이 (N=729)

피험자의 성별 \ 패션이미지	현시적	사교적	역동적
남성	-.03	.15	-.16
여성	.02	-.09	.10
F값	5.5*	9.7*	17.3*

숫자는 요인점수 평균값임 *p<.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 및 미용 학원생을 대상으로 남성의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요인 및 헤어길이,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른 남성의 패션 이미지는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평가적, 역동적 요인의 순으로 5개의 이미지요인이 구성되었다. 특히 현시적 요인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헤어변인이 의복 변인에 따른 이미지평가에서 평가적, 역능적, 사교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이미지는 의복 인상

에 대한 평가보다는 헤어스타일에 따라 남성의 패션 이미지의 평가모형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둘째, 헤어길이에 의한 이미지효과는 모든 이미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교적 요인은 헤어 길이에 따라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지며, 평가적 요인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적 요인에서는 긴 머리가 가장 현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 짧은 머리가 가장 현시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적 요인에서는 짧은 머리가 가장 사교적이며, 긴 머리와 약간 긴 머리가 사교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능적 요인에서는 약간 짧은 머리가 가장 역능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적 요인에서는 약간 긴 머리가 가장 평가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고, 짧은 머리와 약간 짧은 머리가 평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동적 요인에서는 짧은 머리가 가장 역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셋째, 헤어컬러에 대한 이미지효과는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평가적, 역동적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헤어컬러의 이미지는 노랑색과 붉은색, 갈색과 검은 갈색이 같은 경향을 보여 노랑색과 붉은색 헤어는 눈에 띄고 화려하여 현시적이기는 하나 사교적이지 않고 역능적이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갈색과 검은 갈색의 헤어는 눈에 띄지는 않으나 사교적이고 역능적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의 상호작용효과는 현시적, 사교적, 역능적 요인에서 나타났다. 헤어길이에 있어서 헤어컬러의 영향은 긴 머리, 짧은 머리보다는 약간 짧은 머리, 약간 긴 머리일 때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되었다. 따라서 중간, 보통 길이의 헤어에서는 염색 시에 더욱 신중한 컬러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긴 머리는 가장 현시적인 것에 반하여 헤어 컬러에 의한 패션이미지의 영향이 적었다. 이는 긴 머리, 헤어 컬러 같은 두드러진 단서가 공존할 때는 하나의 단서가 평가 절하되어 패션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두드러진 단서가 공존할 때는 두드러진 하나의 단서가 평가 절하되어 지각된다는 평가절하의 작용이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헤어스타일에 따른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대한 남·여지각자의 평가는 차이가 있어 현시적 이미지에서는 여성이 더 현시적으로 평가하였고, 사교적 이미지에서는 남성이, 역동적 이미지에서는 여성

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헤어컬러는 현시적 이미지 지각에 헤어길이는 남자의 사교적, 역능적 이미지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남·여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염색한 머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므로 헤어컬러보다는 헤어길이가 남성모델에 대한 지각자의 지각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헤어스타일을 중요한 변인으로 조작한 본 연구는 이미지 요인 중 현시적인 이미지가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의복 착용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평가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큰 차이점으로 분석된다. 또한 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른 남·여의 지각차이는 각 인상요인별로 약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이 몇몇 특정한 스타일에 대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패션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지금까지 인상형성 연구 분야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남성의 헤어스타일(헤어길이와 헤어컬러)에 따른 인상형성차이를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패션 이미지 코디네이션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첫째, 두 개의 두드러진 단서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제공될 경우에 시각적인 강조효과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므로 눈에 두드러지는 하나의 단서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둘째, 헤어길이에 따라 지각되는 이미지가 달라지므로 패션 이미지 코디네이션 연출 시 헤어길이에 대한 이미지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컬러에 따른 이미지의 고정관념이 모든 길이의 헤어에 동일한 이미지로 지각되지 않으므로, 헤어염색 시에는 헤어길이에 따라 달라지는 헤어컬러의 이미지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착용자의 인상평가에서는 외모, 의복, 화장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의 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이미지의 평가에서는 토털 코디네이션 개념이 중요시되어야 하며, Kaiser의 맥락이론이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었다. 헤어스타일과 의복은 하나의 맥락으로 작용하여 착용자의

패션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남성의 헤어스타일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른 변인, 즉 웨이브의 정도, 남성의 메이크업, 의복의 격식차림의 종류에 따른 패션 이미지의 차이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자극물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선정하고 제시하여 좀더 객관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나광주. (1989). *衣服과 헤어스타일의 印象形成에 대한 關心度*.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주연. (1990).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 의 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 서윤경. (2003). *여대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헤어컬러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항상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지성. (2000). *헤어컬러(Hair Color)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서미아. (1998).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이미지 및 형태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4), 13-25.
-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340-351.
- 임희정. (2001). *大學生들의 헤어스타일 形態와 關心 및 變化에 관한 研究*.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Horn, & Gual. (1981). *The Second Skin*. B stones: Houghton Mifflin Co.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2nd de. Revised), N.Y: Macmillan Pud. Co.
- Miller, F. G. (1982). *Clothing and Physical Impairment: joint effects on person perception*. 10(3). 265-270.
- Pancer, S. M. & Meindle, J. R.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less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6, 1328-1330
- Peterson, K. & Curran, J.P.(1976) Trait attribution as a function of hair length and correlates of subjects preferences for hair style. *Journal of Psychology*, 93(2), 331-339
- Wingate, S. B., Kaiser, S. B. & Freeman, C. M. (1986). Saliency of Disability Cues in Functional Cloth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7-49.